신이식 환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10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1], 외과학 교실[2]
진동찬[1], 윤영석[1], 윤선애[1], 김용수[1], 방병기[1], 고용복[2]

신장이식등의 등종 장기이식후에는 장기적인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악성종양의 발생율이 증가하며 특히 cyclosporine을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임파증식성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이식수의 증가와 생존율의 상승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있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대책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1969년 이후 1992년 말까지 820례의 신장이식을 시행하고 이 환자들중 10례(1.2%)의 악성종양(위암 4례, 악성임파종 2례, 자궁경부암 1례, 성인형 Wilms' tumor 1례, 폐암 1례, 피부암 1례)이 진단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Case No.	Age/Sex	Interval between KT & Dx (mo.)	Immuno-suppressnant	Dignosis	Last Cr (mg/dl)	Outcome
1	34/M	169	Aza/PDN	stomach ca	3.9	death
2	48/M	76	Aza/PDN	stomach ca	1.4	death
3	52/M	154	Aza/PDN	skin ca	9.0	death
4	46/M	52	CsA/Aza/PDN	lung ca	1.4	alive
5	47/F	21	CsA/PDN	Wilms' tumor	1.1	alive
6	31/F	25	CsA/PDN	cervix ca	1.6	alive
7	48/M	21	CsA/PDN	stomach ca	1.3	death
8	52/M	6	CsA/PDN/OKT3	lymphoma	1.4	alive
9	32/F	6	CsA/PDN	lymphoma	2.7	death
10	49/M	84	CsA/PDN	stomach ca	2.5	alive
Median	48 yr	52			1.6	

이 환자중 치료후 5명은 이식신이 기능하는 상태로 생존하고 있으며 이중 한명은 요독증으로, 4명은 악성종양과 관련되어 사망하였다.